

# 나주시, 대호수변공원 랜드마크 '시계탑'

### NH 농협은행 나주시지부 기증 설치...제막식 개최 높이 4.5m 시계탑...시민 편의 제공 경관 명소 기대

나주시 대호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더해줄 시계탑이 세워졌다.  
나주시는 지난 5일 대호수변공원 잔디광장에서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지부장 박내춘)와 함께 '대호수변공원 시계탑 제막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시계탑은 공원 내 체육·놀이시설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농협 나주시지부에서 기증해 설치됐다.  
유럽풍 디자인의 높이 4.5m, 반경 2m크기로 하루 시간 정보 제공과 함께 야간시간대 은은한 조명을 밝혀 새로운 경관 명소가 될 전망이다.  
박내춘 지부장은 "농협을 애용해주신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대호수변공원에 시계탑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헌활동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군,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구례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울 및 제주도를 제외한 26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구례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육성과 관광편의 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구례군은 사업비 15억원(국비 7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동면 지리산 온천관광지내에 온천수를 활용한 체험형 물놀이 시설 조성, 산수유 관광콘텐츠 개발, 구례산수유 웰니스페스티벌 개최이며 공모사업을 통해 정체되어 있는 지리산 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관광객 유입과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군, '결핵 퇴치' 총력...예방부터 치료까지

### 만 65세 이상 어르신·집단시설 종사자 검진 필수



화순군이 결핵 환자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결핵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결핵 환자에게서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감염되며 기침, 가래, 피로감, 식욕 감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초기 결핵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도 많아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객담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시행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대한결핵협회 이동 검진 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맞춤형 검진사업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노인 의료복지시설 7

곳의 입소자 등 423명에 대해 결핵 검진(흉부 엑스선 검진)을 시행하고 유소견자 45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 중이다. 10월~11월에 추가로 600여명의 어르신 검진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의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면역력이 취약한 집단 시설 종사자(매년 1회)와 잠복 결핵 검진 의무대상자(근무 기간에 1회)가 제때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잠복 결핵 검진 결과, 양성인 경우는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균이 활동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갤러리 107, 12월 2일까지 가을 기획 초대전 미몽(美夢) 전시

오는 8일부터 12월 2일까지 곡성군 갤러리107과 스트리트갤러리에서 정준표 조각가 초대전이 열린다.  
정준표 조각가는 우리나라 대표 여류 조각가로 국내외를 중심으로 활발한 조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대전에서는 아름다운 꿈을 뜻하는 '미몽(美夢)'이라는 주제로 50여점의 입체 작품과 설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정준표 조각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정준표 조각가는 조선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국회여성 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분과 이사,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 광주광역시 미술장시품 심의위원, 한국미술협회 조각 분과 이사로 활동 중이다.

곡성=김광휘기자

## 장성군, 집중호우로 재해 입은 과수농가 '빠른 영농 재기' 돕는다

### 저온피해 예방시설·과원시설 개·보수 비용 등 지원

장성군이 올 봄 개화가 이상저온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빠른 영농 재기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27개 과수농가에 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피해 예방 시설과 관·배수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설치, 각종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억3000만원을 반영하고 곧바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품목인 열풍방상팬은 열풍시스템의 뜨거운 공기를 강제 순환시켜

봄철 개화가 때 저온과 서리피해를 줄여준다.  
미세살수장치도 과수원에 안개처럼 물을 뿌려 주위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저온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올 봄 장성군에선 이상저온으로 사과, 복숭아 등의 과수꽃이 떨어지고 새순이 죽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는 침수 피해가 이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고통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



장성군 직원들이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원을 찾아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군, 추석 연휴 방문객 8만 명 넘어 '안전사고 0건'

담양군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8만7천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담양을 찾았다고 밝혔다.  
군은 추석 당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요관광지 운영을 중단했으며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공무원 및 방역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예방 홍보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럼에도 올해 추석 연휴 주요 관광지 17개소에 87,446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요일별 최대 방문일은 추석 다음인 10월 2일이 30,230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관광지별로는 메타프로방스, 죽녹원, 메타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다.  
2019년 방문객(88,066명) 대비 620명이 감소했으나 연휴 평균 방문객 수가 17,490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석 당일 주요관광지의 정상 운영 시 관광객 수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돼 코로나19 상황에도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면모를 보여줬다.  
또한 주요 관광지 외에 농번기 황금들녘과 군 전역의 코스모스 꽃길, 대나무 박물관 옆 핑크몰리 등 곳곳에서 지나가는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아 군 전역의 관광 지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담양=박종영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